

대중음악 보컬 발성법에 관한 연구 -진성(眞聲) 발성훈련을 통한 소리의 확장1) 중심으로-

조태선*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entheos@korea.com

Research on popular music vocalization

Tae-Seon Cho*
*Dept of Applied Music, Choongwoon University

요 약

한류 문화를 비롯해 방송사들에서 시행하는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들로 인해 대중음악계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요계의 발전과 더불어 가수가 되고자 하는 지방생들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아직은 이들을 가르치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교육적인 여건이 미비하다.

본 논문은 가수지방생, 즉 보컬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호흡과 발성법에 관한 논문이다. 호흡과 발성은 노래를 잘하기 위한 과정이지만, 노래를 잘하기에 앞서 목소리를 크게 만들고 라이브 공연 시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내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명성에 비해 라이브 실력이 부족한 가수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모두 호흡과 발성훈련을 소홀히 해서 생긴 결과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크고, 안정적인 목소리를 만들기 위한 발성훈련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논문이다.

1. 서론

요즘의 대중음악계를 보면 가히 역사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듯하다. 중국, 일본으로 부터 시작하여 동남아는 물론 남미, 유럽등지에 이르기까지 한류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슈퍼스타K”, “위대한 탄생”, “TOP밴드” 등의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프로그램 초창기부터 수많은 논란을 낳았던 “나는 가수다”. 과거 6,70년대 통기타 시절을 상징이었던 “씨시봉”의 화려한 재등장....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콘서트 관련 공연이 최고의 흥행을 달리고 있으며, 모든 콘서트 공연이 만원사례를 이룰 정도로 엄청난 흥행 물이를 하고 있다. 그로 인해 음원 다운로드 횟수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한때 불법 복제와 음원 불법다운로드로 인해 고사당할 위기에 처했던 국내 가요계가 그야말로 기사회생하여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요계의 발전과 더불어 가수로 데뷔하려는

지방생도 상당히 늘어났는데, 이는 각 대학의 실용음악과 지원 생들 숫자를 보면 가늠할 수 있다. 2012학년도 지원 생이 전년에 비해 약 30% 이상 증가 되었다.

그 중에 대부분이 보컬, 즉 가수 지방생들인데 아직은 대중음악분야의 교육적인 여건이 다소 미약한 관계로 보컬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지방생들이 너무나 많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보컬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이라면 호흡과 발성, 발음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정확히 훈련되지 않아 정확하게 구사되지 않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가수들 중에도 라이브 공연 시 목소리가 불안정하고, 음정이 맞지 않는 다든지 혹은 고음부분에서 파열음이 생긴다든지, 쉽게 목이 쉬고 그로 인해 성대 결절²⁾이 생긴다든지 하는 현상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

1) 소리의 확장이란 발성훈련 과정을 통해 크고 힘 있는 목소리를 만드는 것을 말함.

2) 성대 결절은 지속적인 음성(목소리) 남용이나 무리한 발성에 의해 발생하는 성대의 양성점막 질환으로, 6~7세의 남자 어린이 또는 30대 초반의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주로 가수, 교사 등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에서 흔히 발생한다.

는 모두 호흡과 발성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들이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들을 비롯해 모든 가수 지망생들은 연습생과정을 거치게 된다. 짧게는 2,3년에서 길게는 7,8년 기간 동안 노래와 춤 등을 기획사 혹은 트레이닝센터에서 교육을 받는다. 그러한 훈련과정과 서로 간에 경쟁을 통해 실력을 검증받은 사람이 가수로 데뷔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쳤고 데뷔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에 힘이 없고, 불안해 라이브 공연 시 음정이 음정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할뿐더러 수시로 성대 결절이 생겨 활동에 곤란함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서두에 언급했듯이 대중음악분야의 교육여건이 많이 미약하기 때문인데, 이는 결국 호흡과 발성 방법 등에 대해 정확히 트레이닝 할 수 있는 트레이너가 없다는 사례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목소리에 힘을 증강시켜 안정적인 목소리를 만들기 위한 발성훈련법에 대해 논해 보기로 하겠다.

2. 본론

정확한 발성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3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자세, 두 번째가 호흡, 세 번째가 입 모양 즉 발음이다.

2.1 자세



[그림 1] 올바른 자세

좋은 소리는 올바른 자세에서 만들어진다. 위의 그림처럼 가슴을 곧게 펴고 목을 자연스럽게 하여 시선은 전방 10시 방향을 응시하는 것이 좋다. 소리는

배에서 만들어져 목을 통해 나오게 되는데 허리를 꾸부정하게 한다거나 목을 굽히면 소리가 나오는 통로가 막히게 되어 목소리가 원활하게 나오지 않을뿐더러 목에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이다. 가수들이 무대에서 노래할 때 목을 뒤로 제치거나 좌우로 꺾어 노래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멋을 부리기 위한 것일 뿐 절대로 따라 해서 안 된다. 우리의 목은 마치 파이프와 같아 목이 틀어지면 파이프의 입구가 좁아 들어 소리가 충분히 나올 수 없는 것과 같음 이치이다.

2.2 호흡



[그림 2] 위배를 활용한 복식호흡

노래를 부를 때의 호흡은 단순히 숨을 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호흡은 곧 에어지이며, 힘이다. 또한 락, 알앤비, 소울 등의 팝음악을 노래 할 때는 소리에 호흡이 섞여 있어야 한다. 호흡이 얼마나 많이 섞여 있는 정도에 따라 테크닉이나 필링 등 가창력이 판가름 나기 때문에 정확한 호흡은 매우 중요하다.

호흡은 아랫배를 이용한 단전호흡과 성악 식 복식호흡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복식호흡을 바탕으로 위배를 사용, 국악 창법을 응용해 힘 있는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호흡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2.1 호흡훈련방법



[그림 3] 복식호흡을 통한 호흡의 확인

본 연구에서의 호흡법은 소리에 호흡을 섞는 진성 호흡법이다. 따라서 발성훈련 시 음 하나하나에 호흡을 섞어 내야한다. 기존의 성악식 호흡법은 배의 윗부분을 밀어내지 않았으나 이 방법은 배의 위 부분에 힘을 주어 호흡을 밀어내면서 소리를 낸다. 성악의 경우 궁극적으로는 두성을 사용하여 정해진 음역만을 소리 내는데 반해, 대중음악은 진성으로 노래해야하며 최대한 자신이 낼 수 있는 음역을 확장시켜야 하기 때문에 배의 윗부분을 밀어내면서 소리를 내야 한다.



[그림 4] 멜로디 연습

위의 악보의 멜로디를 한음 한음씩 소리내어본다. 위배를 최대한 앞으로 밀어내면서 호흡을 최대한 섞어 진성발성으로 소리를 내어본다. 물론 꾸준한 반복훈련이 필요하며 계속된 점차적으로 고음으로의 훈련과정을 통해 발성은 물론 음역확장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2.3 발음

소리 즉 발성이 아무리 좋아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결코 좋은 노래가 될 수 없다. 발음은 단순히 노랫말을 전달하는 기능뿐 만 아니라 노래를 훌륭하고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역할을 한다. 때로 노래에 필링을 주기 위해 발음을 살짝 비틀거나 흘려 발음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 는 안

된다.

정확한 발음을 하기 위해선 가급적 입을 크게 벌려야 한다. 그리고 노랫말 하나하나를 정확하고 성의 있게 발음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올바르게 표현 될 때 좋은 노래를 구사 할 수 있다.

3. 결론

한류문화를 비롯한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 등 최근의 현상들은 분명 가요계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 가요계는 역사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양적인 성장과 아울러 질적인 성장이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 가요계를 흔들림 없이 오래도록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대중음악계는 외형이 비해 베이직이 많이 취약하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중음악교육과 관련된 것인데 아직도 대중음악, 즉 실용음악을 학문으로 바라보지 않는 시선, 그에 따라 공교육에선 클래식만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입증 한다 하겠다. 수많은 가수 지망생들이 노래의 테크닉은 물론 발성과 호흡 등 보컬관련 훈련을 정확하게 받을 교육기관이 필요하며, 또 훌륭한 선생님들을 배출해 낼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라이브가 되지 않는 가수는 설자리가 없어질 것이며 그러한 무늬만 가수를 키워내는 시스템이 사라질 때 우리 가요계는 진정한 한류로 전 세계로 뻗어 나 갈 것이다.

참고문헌

- 1) 조태선 2005 대중가요의 호흡과 발성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 2) 박승희 1994 가수가 되자 녹진
- 3) 박애경 2000 가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책세상
- 4) 최동현 1999 판소리 이야기 작가
- 5) 후쿠시에이 2002 나도 명가수 아람
- 6) 조태선 2009 대중가요 발성법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